



제1독서	2열왕 4,42-44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2독서	에페 4,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 오셨네. ◎
복음	요한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구 공동체 |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넷째 해

주님과 함께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주님께서 배부르고 넘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지수 그리스도폴 신부 / 이원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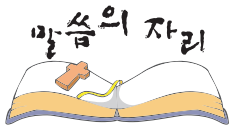
재작년, ‘왜 새 성당을 지으려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대답이 없으셔서 제 안에 피어오르는 여러 이유들이 그 대답이시리라 믿고, 한걸음씩 내디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곳 주민 수가 오천 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이루어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보다는 안드레아 사도와 같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도 적고,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며, 주일미사 신자 수 120명, 신자평균연령 66세……. 하필 이름도 ‘이원…….’ “주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뉘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연예인, 방송인에게 편지도 써보았습니다.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께서 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한번 부탁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하더군요. 곧장 만남을 주선해 달라 하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초면이지만 몇 시간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3억을 봉헌해 주십사 청했습니다. 그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제 전 부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성당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으

로 멀더군요. 서글프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인간적인 계산도, 기대도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 다 채워주시더군요. 본당 교우님들조차 믿지 못할 만큼……. 기적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던 보리빵과 물고기를 봉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봉헌하는 모두를 은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가진 것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기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계신가요?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비우지 못해 꼭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 하느님의 뜻을 달리해서이거나, 아니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족한 믿음 때문이 아닐런지요. 시골 밤하늘엔 별이 참 밝습니다. 대기오염과 눈부신 네온사인 덕분에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진귀함이지요! 이처럼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 좌절과 실망,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기적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배부르고 넘치게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계획을 쥐어 짜내는 일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서 해설과 묵상 ④ _ 역사서와 신명기의 관련성 2

글/ 이종섭 마태오 신부 / 오송 본당 주임

역사를 쓴다는 것은 과거사실의 의미를 현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비판하는 해석학적 작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과거사실을 통해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역사가의 책무라고 볼 때 역사가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역사 해석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할 때 자신의 역사관과 방법론에 의거해 과거사실을 취사선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역사기록을 대하든지, 그 역사기록의 사실성 여부와 함께 그 역사를 쓴 사람의 역사관을 파악해야만 역사의 진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역사서에 적용해 보면 신명기 학파 역사가의 관점이 드러난다. 그것은 신명기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서 저자가 채용하는 신명기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그 원칙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다.

- 1) 하느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신다 (신명 9,1-6; 26,16-19).
- 2)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면 축복을 받고, 깨면 벌을 받는다(신명 4,21-31; 11,26-32; 28).
- 3) 오직 주 하느님 한 분만을 흠송해야 한다(신명 4,39; 6,4-19; 13,2-19).
- 4)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신명 12,1-14).
- 5) 예언자들은 주 하느님의 대변자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신명 18,9-22).

신명기 학파의 역사가는 이런 관점에서 갖가지 구전전승과 방대한 자료를 편찬하고 정리했다. 그 자료에는 민속설화, 목격자들의 이야기, 역대 임금들의 치적에 관련된 왕실문서와 임금들의 재산목록, 예언자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이런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했지만, 가끔 교훈적인 목적에 따라 연대를 무시하고 배열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역사서를 읽을 때 중복된 이야

기를 발견한다. 이것은 특별히 사무엘기 상권에서 잘 드러난다. 그것은 역사서 저자가 서로 다른 사료들, 출처가 다른 단편들(예를 들면 사무엘 원전과 사울 원전)을 연결하여 이스라엘에서 왕정의 출발과 다윗 임금의 초기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나 현대의 사학자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일목요연한 구성과 연속성을 신명기 학파의 역사서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마지막 형태로 볼 때, 역사서는 신명기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학파의 작품임이 틀림없다. 이 학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묵상하고 거기서 종교적 교훈을 끌어낸다. 따라서 신명기 학파의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역대 임금들의 과거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지 설명하고 교육하려는 의도로 역사를 썼다.

그러나 역사서에 신명기의 영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서 안에는 기원전 1200년 경 가나안 정착시대까지 소급되는 전통과 자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윗과 우리야, 렘브란트(1665) oil on canvas, 127×117cm
The Hermitage St.Petersburg

● 묵상주제

신명기의 원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오늘날 내 삶에 적용해보자.



딱따그르르.....

글/ 송열섭 가시미로 신부 / 복음화연구소장

‘딱따그르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요?

숲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 10여cm의 작은 새였지만, 머리를 한껏 뒤로 제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를 내리 쪼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나무를 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를 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머리가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아랑곳 하지 않을 정도로.....

딱따구리(Woodpecker)는 ‘탁목조’(啄木鳥)라고도 불립니다. 딱따구리는 지구상에 2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청딱따구리와 오색딱따구리 등 9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나무줄기에서 생활하기에 곧고 날카로운 부리와 날개축이 단단한 꼬리 깃을 가지고 있고, 다리는 짧지만 힘이 세고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일단 나무에 매달린 채로 자리를 잡으면 먹이를 찾기 위하여 나무를 쪼아대는데, 자그마치 1초에 약 15번을 쪼는다고 합니다. 그 속도는 기관단총의 거의 두 배, 시속 2000km에 달합니다.

가끔 딱따구리 소리를 들을 때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 역시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어머니 복중에 임신될 때, 난자와 만나기 위한 정자들의 여정도 그러하고, 출산의 산고를 겪는 산모와 출생하는 아이도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엄마 젖을 빨 때도 아기는 젖병을 빠는 힘보다 50~60배 더 강하게, 콧잔등에 땀이 송송 배일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딱따구리가 날카로운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뚫은 다음 가늘고 긴 혀를 구멍 속에 넣어 혀끝으로 딱정벌레의 유충 따위를 끌어내서 먹듯이, 우리도 수고해야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마지막 숨을 몰아실 때까지 매순간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삶에 충실할 때, 삶의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마태 22,37-38).



빵을 불린 기적(부분),

1480-1524년경,

요아킴 파티니르(Joachim Patinir, 1485-1524),

마드리드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스페인

작품해설/ 박혜원 소피아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티베리아 호수를 건너자 그를 따르던 군중 오전 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식량이라고는 고작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다. 작가는 이를 불러 모두를 배불리 먹인 기적의 장면을 담고 있다. 마치 하늘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본 듯 확 트여 펼쳐지는 푸르른 풍경은 온통 하느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하늘의 구름 사이에는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는 하느님이, 그리고 푸른 언덕 중앙에는 푸른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손에 빵을 들고 축성하고 있다. 그 앞에서 광주리가 득 빵이 담겨있다. 마치 동양화를 보는 듯 대자연의 거시적이면서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교구 내 기관 소개 ③ 충주성심학교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 / 충주성심학교 교장

- 주소 _ 충주시 봉현로 261
- 전화 _ 847-3230, 852-1557
- 홈페이지 _ <http://sungsim.sc.kr>

충주성심학교는 1955년에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옥보을(Fr. Wilbur Joseph Borer, 1897-1982)신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전국 최초의 청각장애 야구부 창단과 그에 대한 영화 ‘글러브’로 잘 알려졌으며, 설립 6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청각장애 특수교육 역사의 큰 흐름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특수학교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이 스스로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영·유아반부터 고등부까지 총 24학급으로 운영되며, 지난 7월 11일에 다목적체육관을 완공했다. 130명의 청각장애 학생과 72명의 교직원 이 있다.

■ 학교 특징

- 만3세 미만의 영아 대상 조기교육과 유아교육으로 일반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통합교육 지향
- 청주에 파견학급 5학급 운영
- 기숙시설을 갖춘 성심농아재활원과 연계한 교육활동
-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와 이중언어를 존중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학습
- 취업과 대학 진학 등 개인 능력에 따른 직업 진로 교육
-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 교내마라톤



• 독서활동



• 언어치료수업



• 충주성심야구부

오늘 복음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합니까?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성체성사의 풍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어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만찬 때 하셨던 행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미사’와 ‘성찬례’를 상기시키면서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은총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눔의 보람이나 풍요로움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모여있는 군중의 수에 비해 너무나 적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 주는데서 바로 오천 명을 먹인 빵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작지만 소중한 나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무엇인지 묵상해보아야겠습니다. <가톨릭 신문 참조>



집 이야기

글/ 권명자 목사 / 수필가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시편68(67),6-7,36)

아름다운 전원주택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도 내 집이 있음은 축복입니다. 가장 편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이 태어나고 꿈이 영그는 포근함이 행복을 피워 올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장만 했을 때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 집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성당이 가깝고 작은 정원도 있고, 허름하지만 편안함을 주는 집을 장만하였으니 말입니다. 잦은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도 가까운데다가 교통도 편리한 곳이라 더 바랄게 없었습니다. 그 때 ‘비둘기 집’과 ‘즐거운 나의 집’은 저의 지정곡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집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성당에서 결혼식을 끝내고, 따라 붙는 남편친구들과 충북대학교로 신혼여행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한 바퀴 돌아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낯익은 친구들은 잔칫상을 받고 젓가락을 두드리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는 답례로 제게 노래를 하랍니다. 집안의 중심부인 대청마루에서 일가친척 어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불려나와 어쩔 줄을 모르고 서서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어서 하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다가 갑자기 부모님과 동생들, 집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집은 그런 곳이었습시다. ‘오~ 사랑, 나의 집…….’ 친구들은 합창으로 마무리를 하고 위로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 집을 장만하여 신부님을 모시고 가정축복미사를 드리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집을 구경하면서 축하하는 이들의 밝은 웃음과 덕담이 오가고, 하느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드리는 미사는 참으로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신부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으로 강론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하느님의 평화와 장엄축복을 내리시는 신부님께 강복을 받고, 은총을 구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신부님께서 집안에 성수를 뿌리시는 동안 성가가 이어지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모신 마리아, 축복 하소서……♪.’

이사 하던 날의 벅차고 행복했던 그 기쁨도 되살아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8.5.주일.10:00	골롬반본부	010-6818-3737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8.5.주일.14:00	서울정릉본원	010-4164-0431




청주성모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신뢰도 높은 진단능력, 최첨단 의료장비, 넓고 아늑한 공간

종합검진에서 일반검진, 5대암 검진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219-8666 종합건강증진센터



교회소식

한국 교회 소식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동영상 제작 배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는 예비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 한국 천주교회를 소개하는 '한국 천주교회'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2년 7월 16일 회의 승인). 동영상은 10분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천주교와 한국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쉬운 해설과 따뜻한 느낌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한국 천주교회의 모습을 소개한다. 영상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의 탄생, 오늘날의 사랑 나눔과 생명 평화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

음을 설명한다. 아울러 교회가 펼치는 사회적 활동의 밑바탕에는 소공동체, 성경공부 등 교회의 본질과 가르침을 익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상의 후반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중심 기관으로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위상과 기능을 다룬다. 또한 천주교의 장점으로 평가받는 일치된 모습은 지역 교회의 목자인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통해 공동의 사목 임무를 논의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온 결과임을 밝힌다. 동영상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디지털 파일은 희망하는 단체에 무상 배포한다.

• 제공문의 _ media@cbck.or.kr 주교회의의 미디어팀

세상 속의 청주교구

최양업 신부님과 함께 걷는 청년도보성지순례

청소년사목국은 오는 8월 17일(금)~19일(주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필립 3,14)를 주제로 청년도보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이 도보성지순례는 최양업 신부님의 정신을 기리고, 하느님의 종 124위와 맘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며 실시된다. 도보순례, 폐제 기도의 밤, 배티성지순례와 미사 등으로 진행된다.

- 일시 _ 8.17.금.16:30~19.주일.14:00
- 장소 _ 증평성당 - 초평공소 - 진천 백곡공소 - 배티성지
- 대상 _ 청년(직장인, 교리교사, 대학생)
- 회비 _ 5만원. 마감 _ 7.31
- 접수 _ eduyouth@hanmail.net
- 문의 _ 220-1703 청년·대학생 사목부

성서 사십주간 안내

청주교구 성서사도직은 오는 8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성서 사십주간을 개강한다. 각 강좌의 개강일정은 다음과 같다. 성서 사십주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3학기동안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성경통독프로그램이다.

- 접수 _ 당일접수
(청소년센터 사십주간은 사전 전화접수요망)
- 회비 _ 3만원(교재대 별도)
- 문의 _ 010-6378-5217, 010-9470-1734 성서사도직

시간	월(8.27 개강)	수(8.29 개강)	목(8.30 개강)
10:00-12:00	교구청 1학기/ 오경, 역사서	봉명동 성당 3학기/신약	
19:30-21:30	금천동 성당 2학기/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가톨릭청소년센터 1학기/ 오경, 역사서	가경동 성당 2학기/역사서II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위니아 덤채 사창점(월드전자)

김치냉장고 덤채, 냉난방기, 이온정수기
사창사거리 농협 맞은편

이성우(안토니오), 이선희(아레스) | 276-9422

캐나다유학원(www.TheEducation.ca)

조기 유학(가톨릭, 사립명문, 공립)
9월 입학 및 Summer Program 상담

육 야고보 | 070-7530-6107
(인터넷 전화, 문자수신 가능)

제대초 짝는 기계

안전함, 절단면이 깨끗함, 크기조절가능
<http://cafe.daum.net/lmy2973>

주덕모터 이문영 니콜라오
010-5481-2973 | 846-2973

현대해상 화재보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확실한 선택(실손의료비, 암,
어린이, 연금, 자동차, 운전자, 화재, 저축, 간병 등)

설계사 이은옥 카타리나 | 010-2574-8766

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아동상담(언어/행동문제), 학습상담(시험불안/학습부진/진로문제),
개인상담(대인관계/가족관계문제), 충주시 연수동 1391-2 센스빌 3층

원장 한 마리아
(10:00~19:00) | 857-5759

독일 휘슬러(A/S 및 제품상담환영)

전기렌지, 압력솥, 냄비세트, 주서기

부장 연만성(사도 요한) | 011-490-4118
강사 이영아 요한나 | 010-3498-7620

알림

피정 및 교육

■고3 예신 피정

일시 _ 7.30.월-8.1.수
장소 _ 교구 연수원

■제70차 남성 꾸르실로

일시 _ 8.2.목-5.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성령쇄신봉사회 무료치유평정

일시 _ 8.3.금.18:00-5.주일.15:00(숙식제공)
장소 _ 초정 성령쇄신봉사회회관
강사 _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외
문의 _ 213-9103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 피정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일시 _ 8.17-19, 9.14-16
대상 _ 젊은이(신참신 35명)
회비 _ 10만원
문의 _ 02-762-2067 복자사랑 피정의 집

회의 및 모임

■물방울(다락방) 모임

일시 _ 8.1.수.14:00 충주 루카서원
8.6.월.10:00 오창 루카서원

■여성연합임원회의

일시 _ 8.3.금.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레지아

일시 _ 8.5.주일.14: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 충주형제회

일시 _ 8.5.주일.14:00
장소 _ 지현동 성당

안내

■교구 주제구현 캠프

일시 _ 7.30.월-8.1.수(2차)
8.1.수-8.3.금(3차)
8.3.금-8.5.주일(4차)
8.5.주일-8.7.화(5차)
장소 _ 음성청소년수련원

■교정사목위원회 후원 월례미사

일시 _ 8.2.목.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해외선교후원회 미사

일시 _ 8.4.토.10:00
장소 _ 용암동 성당

■성직자·수도자 고해성사

일시 _ 8.6.월.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경당

■베네딕도의 벚꽃 캠프

일시 _ 8.10.금-12.주일
장소 _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대상 _ 수도생활체험학교 역대 참가자 남녀
문의 _ 054-970-2000, 010-8353-2323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대안교육 연수회

일시 _ 8.11.토-12.주일
장소 _ 양업고 다목적실(토마스관)
대상 _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문의 _ 260-5076, www.yangeob.hs.kr
※2013년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있음.

■여성연합회 제주도 산행

일시 _ 9.17.월-18.화
장소 _ 올레길 12코스 및 성지순례
한라산(돈네코 코스-남벽분기점-영실 산행)
회비 _ 26만원, 문의 _ 010-4488-0277

■예비신자 통신교리 안내

대상 _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반에 함께
할 수 없는 분(18세 이상)
내용 _ 우편/사이버(http://www.cdcc.co.kr)
문의 _ 210-1731 선교사목국

■복대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내용 _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대상 _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인정자 1-3등급)
문의 _ 276-7435 ※자원봉사자 모집

■충주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내용 _ 방문요양(가정방문 1:1 서비스)
주간보호(노래교실, 미술활동 등)
대상 _ 장기요양 1-3등급 어르신
문의 _ 848-0801~3
※목욕자원봉사자(남) 모집
■공소사도회 청산본당 용산공소 방문
일시 _ 8.5.주일, 8.12.주일, 8.26.주일
일정 _ 08:30 사천동 성당 집결
10:00 공소예절
문의 _ 016-203-9829

모집

■재가지원사업 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_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조건 _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차량소지 · 운전가능자
문의 _ 222-9633~4
영운카리타스소규모노인종합센터
※ 독거어르신 후원(생필품 후원, 1:1 결연
후원, 밀반찬 서비스용 후원금)

■꽃동네대학교 수시 모집

인원 _ 사회복지학부 64명, 간호학과 14명
원서접수 _ 8.16.목-28.화
문의 _ 270-0100~2

■꽃동네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수강생 모집

대상 _ 제한 없음(학력, 연령 무관)
장소 _ 꽃동네 회관 요양보호사 교육원(사창동)
문의 _ 273-2097, 010-5115-8790

■꽃동네대학교 남생활관 사감 모집

대상 _ 35세 이상 남자(야간근무 가능자)
접수 _ 7.27-8.7
문의 _ 270-0112 총무과
http://kkot.ac.kr 참조

■생활지도교사 모집

내용 _ 정신지체아 돌봄
문의 _ 212-3360 성향석두루카선교회

청주주보 상업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출판사 Tel : 273-5000~2, Fax : 273-5003, e-mail : dewmok@hanmail.net

마르타 앤틱(유럽성물수입, 미사포, 목주머니)

앤틱가구, 소품, 프랑스 마틸드 엠
네이버 검색 "마르타앤틱" 클릭하세요.
황규숙 마르타
010-5004-4720 | 216-4720

성모요양병원

저렴한 요양병원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이사장 김동국 베네딕토 | 844-2000

진성당

금.은.보석.예물전문점
흥업백화점 후문, 오수희 미용실 앞

양진성 바오로 293-3585
유은종 미카엘라 | 010-9424-9777

비즈데코, 헌터더글라스갤러리 청주점

각종 블라인드 커튼, 카펫, 수입벽지
지웰시티몰 312호
오계순 글리제리아
010-7733-9018 | 236-9018

강남 비노기과 진료 피부과

전립선(레이저), 요실금, 남성수술
요로결석, 피부질환 및 미용관리
의학박사 전문의 2인 진료
원장 정원일(마오로), 조성환 | 241-3131
율랑동 농림사거리

한국한문교사 남청주연수원 연수생 모집

국가공인 한자한문전문지도사 2급과정
접수: 7.18-8.20 교육기간: 16주(60시간)
김충배 토마스
010-3176-6700 | 288-0120